

여성들이여-사랑과 섹스를 혼동하지 말자!!

최 차 혜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여성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심 심치 않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9시 뉴스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벌이는 기사 중에 잘못된 성지식에 대한 내용이 종종 눈에 띈다. 우리들을 경악케 하는, 상상도 못할 개방적 성개념이나 그 무지의 결과로 빚어지는 웃지 못할 촌극들, 여고생의 화장실 출산이나 초등학교생의 매춘, 집단 혼숙에 AIDS 공포까지.....

특히 미혼여성의 성(性)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현실이다. 미혼여성의 성욕은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이 갑갑한 사회에선 더더욱 표면화 시키기 조차 눈치보이는 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참으로 많은 미혼 여성들이 실제로 성(性)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임신을 할 것 같고, AIDS에 노출될 것 같고, 모두가 말썽 많은 청소년기를 거쳤음직한 문제있는 여성으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과연 사랑과 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 전 꽤 놀라운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랑하는 남 녀가 부모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13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후 필자의 가슴은 진정, 슬프다 못해 우울해졌다.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서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되는가-

죽음으로 밖에는 대신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은 왜 그리도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랑과 섹스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한다면 육체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과 섹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연애를 하는 남녀 사이라면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섹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성의 목소리는 '우리는 아직 결혼 전인데...' 라고 타이르지만 감정의 목소리는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야' 라며 스스로를 달랜다. 더구나 요즘 세상은 아직 미완(未完)의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조차 성급하게 섹스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썩 편리한 변명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첫째가 자유라는 사상이다. 사랑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픈 것은 만고의 진리이니 자기네들은 육체관계를 가질 자유가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로는 낮은 도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각, 혼전순결은 케케묵은 걸치레에 불과하다는 이론이다.

셋째로는 '처녀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다. 남자의 동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처녀성을 강요하는 부당성에 대해 스스로 반기를 든 때문이다.

넷째로는 피임기구의 보급과 임신 중절수술의 보편화로 임신중절에 대한 두려움이 차라리 안전장치로 탈바꿈한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딜 가나 버젓이 간판을 들고 있는 여관 등의 숙박업소와, 그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다는 현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사회적인 이유로 젊은이들은 개방적인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참 성욕이 왕성한 사랑하는 젊은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개방된 성개념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선 안될 일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곧 섹스하고 싶은 욕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사랑하는 감정 뒤에는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성욕은 결코 사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은 아닌 것이다. 사랑의 의미를, 하나의 인간과 인간이 만나 진정으로 서로를 공유하면서 인생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절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섹스라는 것은 한낱 그 사랑의 미세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물론 섹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감히 사랑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선택적 조건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랑과 섹스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 본질을 더럽히지 말자

사랑이 정신적인 것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정신적인 것이, 육체 안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사랑하니까 섹스는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랑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연애하자마자 섹스를 하든 말든 상관 없지만, 사랑을 아낀다면 그건 아니다.

섹스를 한다고 해서 설령 애정이 식지는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육체관계를 함축한 사람이 되어버려 이미 순수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우며 구체적이고 순수하며 다양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할 기회가 많은 젊은이들이기에,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순수한 나만의 사랑을 지켜감이 어떨까?

성욕에 관한한 참을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사랑하는 그이 앞에서 콧대 높여 나 자신을 지키는 자존심이야말로 더욱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이 아닐까……. 72